

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설치...33억 원 투입 34개 마을 우선적 완료

수질·수위·유량·외부 침입상태 등 실시간 원격 감시 및 신속 대응

강진군이 33억을 투입한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34개의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 완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군은 환경부 지원 시범사업인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유치해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했다.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각 마을에

설치된 수질, 수위, 유량, 외부 침입상태 등의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를 극복하고자 "한 국판 뉴딜"을 천명하였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 기존 아

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변환해 국민안전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라는 과제가 선정됐다.

군은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보급률은 68%로 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강진읍과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 중 138개 마을은 임반관정을 개발해 소독 후 공급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설치해 먹는 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화학약품 등에 의한 토질 악화로 지하수 수질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마을 단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장이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스마트 관리체계를 기반

으로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수도시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제 행정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가로등이 안켜지고 수도물이 안나오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야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는 구조는 전부 바뀌어야 한다. 비록 일부 시설에 설치했지만 앞으로 강진군 모든 시설을 디지털 스마트화해 선제적 민원해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강진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월동 왕우렁이 방제 현장연시회 눈길 피해 최소화 관리 요령 시연

해남군이 늘고 있는 월동 왕우렁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 연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폐사하지 않고 월동후 다음해 모내기 벼를 갹아먹는 왕우렁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제하기 위한 연시회를 23일 해남읍 내사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관내 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를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전남농업기술원과 시·군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시회에서는 왕우렁이 피해현황 및 원인 분석, 왕우렁이 종합 관리 교육, 왕우렁이 방제·관리 요령 시연 등이 진행됐다.

해남군의 우렁이 농법 면적은 약 3,400ha로 제조효과가 우수해 친환경 제조방법 중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만 올해 겨울철 해남군 평균 기온은 4℃로 평년(2.4℃)보다 1.6℃ 높아 왕우렁이 월동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모내기 눈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올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긴급약제를 지원하고, 예비모판 1만 3,000장을 공급했으며, 왕우렁이 긴급방제단을 편성해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지도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우렁이 방제를 위해서는 이앙 전 1단계로 피해 지역 주변 농수로로 사전에 약제로 방제하고, 용수로 및 배수로에 차단망과 포집망, 통발을 이용해 농수로 서식 개체를 줄여야 한다.

생육기에는 중간물떼기 기간 배수로에 포집망을 설치하고, 유인제를 활용, 배수로 주변으로 유인 후 수거 및 방제한다.

수확기에는 수확 전·후 배수로 부근에 물길 또는 웅덩이로 유인 후 수거하고, 겨울철(1~2월) 깊이갈이를 실시해 월동을 방지한다.

진도군, 14억원 투입...다목적 인양기 설치 추진

진도군이 어획물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소형어선 인양 등을 위해 올해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10톤급 다목적 인양기 15개소를 지원한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다목적 인양기 191개소를 설치했으며, 시설물 보수는 어촌계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매년 전문 보수업체와 함께 정기점검을 통한 현장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비 과다 시 군비 지원 등을 통해 유지 보수에도 노력하고 있다.

다목적 인양기는 태풍·해일 등 기상악화 시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역할은 물론 어획물 생산과 위험에서부터 어선수리 및 대피, 양식 기자재 운반 등 다목적 활용

이 가능한 수산 시설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 활성화가 예상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재해발생 시 어업인 재산보호를 위해 인양기 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춰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업인들이 인양기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청사 화재진압 소방서 합동훈련 실시

코로나19 상황 감안 간소화된 내용 시행

장흥군은 지난 24일 군 청사 화재에 대비하여 직원 초동 대응 능력 강화와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장흥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여인원 최소화하고 직원 집결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내용으로 시행됐다.

훈련은 청사 화재발생 시 초기 진입활동 및 인명대피에 중점을 두고 개인별 임무에 따라 초기 조치 활동, 소화기·소화전 작동 등 화



재진압 실제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대비해야 상황 발생 시 빠르고 안전한 대응조치가 가

능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 명사십리 해변 자동차극장 '좋아요'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향유 프로그램 실시

완도군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극장이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료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비대면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지 명사십리 제2주차장에서 7월 25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특별 자동차극장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386명(자동차 120대)이 최근 개방작 '침입자'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신지 명사십리 해변은 약 3.8km로 중심부에 위치한 제2주차장은 차량 2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스크린

을 설치할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선착순으로 예약한 차량 120대가 저녁 6시부터 입장하면서 차량의 모든 탑승자는 발열체크를 받고 인적사항 확인한 후 입장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사전예약 및 현장에서 신청한 차량이 입장하면서 가로 20m 세로 11m의 대형 스크린을 활용하여 관객들이 자동차 경적과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응원하는 특별 퍼포먼스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영화 관람을 마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함평천지 농·특산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